

중부발전, 印尼서 수력발전 계약 신재생 에너지 우수 기술력 확산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동반진출
현지 수력발전 독보적 입지 다져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왓푸(45MW), 팡카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한국중부발전 김광일 기술안전본부장, 세번째 DL이앤씨 문병두 토목사업본부장) /중부발전

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

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2025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0억 투입해 2만대 보급 배터리교환형 보조금 확대

국가표준 충전시설 500기에 50억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수

개선됐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간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구제역 확산 빨라 추가발생 우려"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 방문
신속한 백신 접종·소독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국내 축산농가 내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17일 소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지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농장에서 보고된 구제역 의심사례가 잇따라 양성으



로 판명됐다.

당국은 전남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물류데스크로 글로벌 패션 수출 지원"

산업부-코트라, 7개국서 운영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물류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

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패션은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을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통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현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맞춤형 봉사' 참여단체 26개 선정

농어촌공사, 최대 3000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

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26개 단체를 주했다. 선정된 단체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농촌 마을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37개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농촌마을을 약 1만1000곳에서 봉사해 참여했다. 봉사단체는 ▲기초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 활동 ▲도배, 청소, 형광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 ▲중·고교생 진로 멘토링, 문화공연 등 교육·문화 증진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공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26개 단체의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설·별목업 31일까지 보험료 신고 접수

근로복지공단, 기한 넘기면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

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포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